

기획시리즈-성인 열전 12

연인들의 수호성인 **성 발렌티노 신부**



성인명 발렌티노 (Valentine)
 축일 2월 14일
 성인구분 성인
 신분 순교자
 활동지역 로마(Roma)
 활동연도 +269년
 같은이름 발렌띠노, 발렌띠누스, 발렌타인, 발렌티누스, 벨런타인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면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는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결혼하려는 젊은이들을 막기 위해 금혼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금혼령을 어기고 결혼식을 주례한 발렌티노 신부(?~270)를 잡아들였습니다. 황제가 “왜 헛된 신을 믿느냐? 로마의 위대한 신을 믿어라.”라고 말하자 발렌티노는 “만일 하느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안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황제께서 마음을 바꿔 하느님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옆에 있던 신하가 로마의 신을 모독한다고 하자, 발렌티노는 다시 “로마의 신은 거짓 신입니다. 하느님만이 진정한 신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황제는 “그렇다면 너는 왜 나에게 하느님의 진리를 말하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이에 발렌티노는 “황제께서 하느님을 믿는다면 구원받을 것이며, 로마제국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번영을 누릴 것입니다.”라고 했고, 황제는 “로마인들이여, 발렌티노 신부가 하는 말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잘 경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신하가 “황제께서는 지금 발렌티노 신부에게 현혹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껏 믿어온 로마의 신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라고 항의했습니다. 황제는 신하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 발렌티노를 감옥에 가두라고 총독에게 명령했습니다.

총독은 발렌티노를 감옥에 가두는 대신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발렌티노는 그 집에 들어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집에 빛을 비추어 주소서. 그리고 이 집의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믿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총독은 “빛을 비추어 주소서.”라는 말에 감동했습니다. 사실 딸이 2년 전에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총독이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하느님이 내 딸의 눈을 뜨게 해준다면 당신의 말을 따르겠다.” 발렌티노는 총독의 딸 눈에 손을 대고 하느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러자 딸은 앞을 보게 되었고, 총독과 그의 가족은 기적에 크게 놀라며 하느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총독의 딸이 눈을 떠보니 영혼과 육신이 깨끗한 발렌티노가 서 있었습니다. 순간 그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꼈으나, 그녀는 발렌티노가 신부라는 것을 알고는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고 괴로워했습니다. 발렌티노는 총독 딸의 그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위로의 말이 담긴 카드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 이야기가 로마의 젊은이들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후로 젊은이들은 사랑을 고백하는 카드를 써서 발렌티노 성인의 동상 앞에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밸런타인데이’의 유래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성인무상심(聖人無常心)’, 즉 ‘성인에게는 고정된 마음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를 신앙적으로 보면 ‘성인은 모든 것을 하느님의 눈으로 본다.’가 됩니다.

[2024년 2월 11일(나해) 연중 제6주일(세계 병자의 날) 수원주보 5면, 백형찬 라이문도(전 서울예술대 교수)]

사순
 제 2주일
 2024년
 02월 25일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화-금 미사전 목주기도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고해성사-11:1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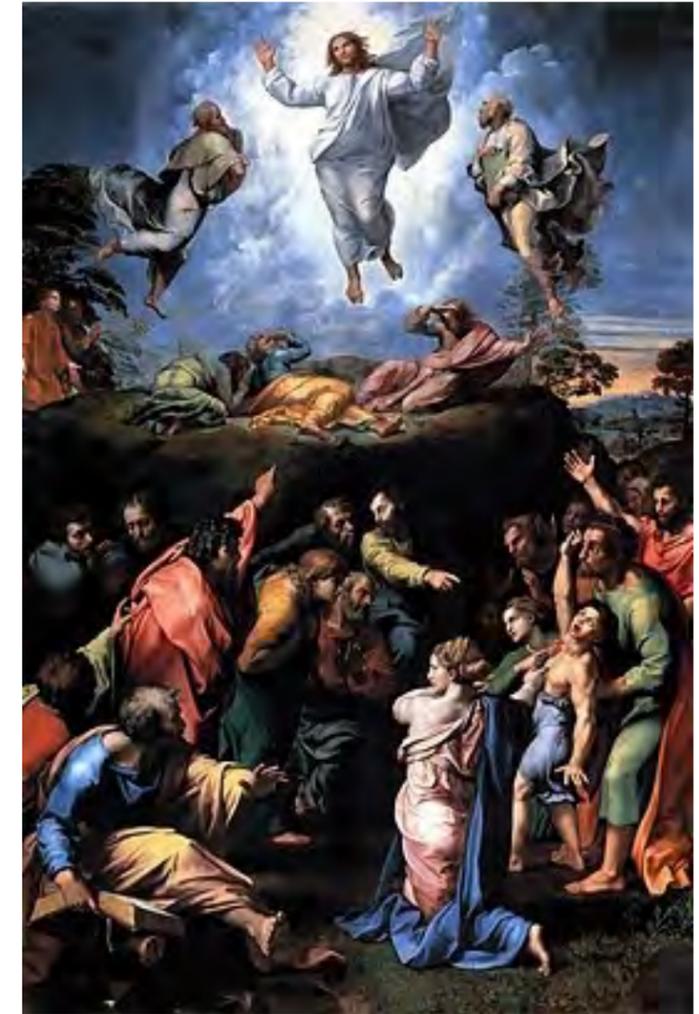
#Tel :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요일
 (9AM~2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용범 사도요한

본당부제
 윤석로 이냐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그리스도의 변모〉 라파엘로 산치오, 1516-1520, 바티칸 박물관

〈 이번 주 전례안내 〉

제 1독서 창세기22,1-2,9,7,10-13,15-18
 # 화답송 시편 116(114-115),10과 15,16-17,18-19,7,ㄴ(◎ 9)



후렴.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 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제 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8,31ㄴ-34
 # 복음 환호송 ○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복음 마르코 9,2-10

성당 소식

✿ 미사에 참례할 때에는 항상, 그날의 독서와 복음을 잘 읽고 묵상한 후에 참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사지향 (연미사)

- 오경선(원선시오) - 가족, 이희숙(테레사), 민규란(엘리자벳) - 가족
- 선점환(마리아) - 가족
- 김진철(요한) - 가족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최정인 - 안을봉(요셉) 가족
- 박중환 - 박정화 가족

✿ 미사지향 (생미사)

- 윤석로(이나시오) 부제님, 윤 안젤라 가정 - 정 테레사 - 가족, 어부들의 마음
- 염은미(클라라) - 가족, 정 테레사, 백상현(요셉) 가족, 서경호(대건안드레아), 채미영(테레사), 한지혜(크리스티나), 나채국(제노) - 황태진(필립보) 가족
- 윤 날리 - 가족, 정 테레사, 백상현(요셉) 가족, 한지혜(크리스티나) - 황태진(필립보) 가족
- 김영필(안토니오) - 백상현(요셉) 가족, 김삼식(베드로) - 한지혜(크리스티나)
- 한상철(빈첸시오) - 황태진(필립보) 가족
- 김청자(안나) - 한지혜(크리스티나)
- 이세건(제노) - 이명호(비비안)
- 이 마크리나 - 백상현(요셉) 가족
- 정다이(모니카) - 소나영(안나), 한지혜(크리스티나), 김민주(이스베리가)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2/18 주일 헌금 (150명) \$1,322
- 교무금..... \$1,770
- 김진(1-3) 유병기(1-3) 이막동(1-12) 민규란(1-6)
- 오용덕(1-2) 박재영(1-4) 백상현(3)

✿ 2024년 사순절 의무사항

- 재의 수요일, 성 금요일은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켜야 한다.
- 사순 기간 모든 금요일에는 금육재를 지킨다.
- 가톨릭 교회에서 금식은 하루에 한끼는 충분한 양을 섭취하고, 나머지 두끼는 가벼운 식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 두 끼의 식사 양은 모두 합쳐서 한 끼의 식사에 해당 하는 양이어야 하며, 만 18세 ~ 만 59세 모든 성년자들은 금식재를 지켜야 한다.
- 가톨릭 교회에서 금육재는 소고기, 닭, 돼지고기, 터키 등의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을 뜻하며, 만 14세 이상의 신자는 금육재를 지켜야 한다.

✿ RAS 주관 Gertrude Hawk 캔디 세일

- 성당 입구에 비치된 주문서를 작성하시어 사무장에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 주문 마감 : 2월 25일(주일)까지

✿ 2023년 세금 보고용 교무금 납부 증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바랍니다.

✿ 모든 친교 후 청소 철저

1. 모든 쓰레기통은 비우고 새 비닐백으로 쭈워주세요.
2. 재활용통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3. 재활용 통에는 병, 캔, 깨끗한 종이 만 넣어주세요.
4. 바닥 청소
5. 마지막 퇴소자는 소등 및 문 단속 확인 바랍니다.

✿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하건철(안토니오) 오용덕(헨리코) 오애희(율리야나)
- 염은미(클라라) 하준석(마태오) 곽 율리안나
- 송희수(클라라)

✿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기도 안내

- 사순시기 동안 매 주일 11시부터 십자가의 길 기도가 있습니다.
- 3/3대건회 • 3/10야고보회
- 3/17청년회 • 3/24자모회
- 2/25 주일은 주교님 사목 방문으로 십자가의 길은 없습니다.
- 3/24 주일은 성지주일 행렬 입장이 11시 20분에 시작하므로 십자가의 길을 10시 50분에 시작합니다.

✿ 2024년도 교무금 봉헌액을 정성껏 갹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교 봉사 일정

- 2/25 이스트브런스워 • 3/17 피스브릿지 • 4/21 노스브런스워

✿ 예비신자 수련식

- 3/3, 3/10, 3/17 3주간 예비신자 수련식이 주일미사 중 거행됩니다. 부활 성야에 있을 세례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될 예비자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예비신자 명단 : 이준원 (대부 김성일 베드로) 주혜운(대모 이서형 요안나)

✿ 2024 Bishop's Annual Appeal

- 〈Stay with us, Lord : Renew our Hearts and Send Us on Mission〉
- 메타천 교구내 사목, 교육, 자선활동을 지원하는 2024 Bishop's Annual Appeal에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2024년 본당 목표 금액은 \$37,000입니다. 목표금액 달성시 초과금의 50%는 본당으로 귀속됩니다

✿ 제임스 체키오 주교님 미사

- 일시 : 2월 25일 (사순 제2주일) 오전 10시 30분 한영 통합 미사
- 제임스 체키오 주교님께서 우리 성당에 오시어 미사를 봉헌해 주십니다. 교우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사순특강 및 판공 성사

- 일시 및 장소: 3월 6일(수) 오전 10시 친교실 (약 1시간 진행)
- 강사: 정창용(타대오) 수사 신부님 (예수의 꽃동네 수도회 아이티 분원)
- 주제: 사순시기와 믿음생활
- 특강 후 판공성사 있습니다

✿ 사순판공

- 일시 및 장소 : 3월 10일(주일) 오전 10시 30분 - 11시 20분(50분간)
- 프린스턴 한인 성당 손대혁(루치오) 신부님께서 성사를 주실 예정이며, 미사 주례 후 판공성사가 재개됩니다.

✿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및 장소 : 3월 10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 기획분과 회의

- 일시 및 장소 : 3월 17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 레지오 마리에 아치에스 행사

- 일시 및 장소 : 3월 24일(주일) 미사 후 성당
- 레지오 마리에의 가장 중요한 연중행사로서, 협조단원분들과 레지오에 관심 있으신 모든 교우분들을 초대합니다

✿ 성모회 주관 테네시 농산물 판매

- 주문 마감 : 2월 25일(주일)
- 신상품 : 들기름 45불, 유기농 고춧가루 \$70

✿ 먼로 구역 모임 (구역장 : 민규란 엘리자벳)

- 일시 및 장소 : 3월 3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 릿거스 구역 모임 (구역장 : 윤준희 안드레아)

- 일시 및 장소 : 3월 17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 새로 오신 분, 방문해 주신분, 오랜만에 오신 교우들 환영합니다!

✿ 성당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당 내에서는 가급적 정숙하여 주시고, 미사 전에는 핸드폰 전원을 꼭 꺼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번역

✿ 제1독서: 창세기 22,1-2.9.10-13.15-18

그 무렵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사악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곳, 내가 너에게 일러 주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그들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곳에 다다르자,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얹어 놓았다. 아브라함이 손을 뻗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마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으니, 네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덩불에 뿔이 걸린 숫양 한 마리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숫양을 끌어와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쳤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였다. “나는 나 자신을 걸고 맹세한다. 주님의 말씀이다. 네가 이 일을 하였으니, 곧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나는 너에게 한껏 복을 내리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한껏 번성하게 해 주겠다. 너의 후손은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니,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8,31-34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 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의롭게 해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누가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셨다가 참으로 되살아나신 분, 또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마르코 복음9,2-10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라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에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해타천 고구 공제

✿ National Eucharistic Revival 성체 기도문 ✿

오 성스러운 만찬

오 거룩한 성체여,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계시는 곳,
그리스도 수난의 기억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가득 채우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저희가 얻게 하소서.

O Sacrum Convivium

O sacred banquet,
in which Christ is received,
the memory of his Passion is renewed,
the mind is filled with grace,
and a pledge of future glory is given to us.

✿ 2024년 에디슨 한인 성당 사목 지표

1. 하느님을 사랑하는 삶 - 미사에 자주 참례하고 영성체를 자주 하며 고해성사를 잘 보는 것, 자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

매 주일에 미사 참석, 사순 대림 판공성사 참여, 분기별 고해성사 권장, 자연 보호, 쓰레기 분리수거 철저, 음식쓰레기와 각종 쓰레기 줄이기, 무분별한 소비 줄이기

2. 교회를 사랑하는 삶 - 교무금과 헌금을 정성껏 봉헌하고 성당 건물과 기물을 내집처럼 보호하고 아끼는 것

성사와 기도 중심의 성당 생활, 수입의 십분의 일 ~ 삼십분의 일 교무금 봉헌, 아끼는 마음으로 건물과 기물 사용, 사용 후 청소 및 원위치, 나갈 때 소등과 문단속, 기도를 중심으로 일치된 공동체

3. 사람을 사랑하는 삶 - 신자들이 서로를 대할 때 먼저 누구에게든 존경하고 위해주는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각자의 영혼에 새겨진 하느님의 모상을 생각함, 험담 대신 격려, 뒷담화 대신 기도, 세속의 언어 대신 신앙의 언어 사용, 모든 일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느님의 섭리 묵상